

頭)가 아니더라도 뒤의 語中(또는 文中) 위치에 나오는 명사 논항을 주목하기도 해야 한다.

차후 단계로는 항상 語末(또는 文末)에 오는 동사/형용사(또는 용언)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용표현 목록을 逆順 사전식으로 재정리 해야 한다. 즉 서술어의 형태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해 놓아야 그 의미유형을 포괄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명사류부터 논해 보자.

1) 명사류의 의미 유형

관용표현을 정상 어순에 따라 분류해 보면 대개 논항들 중 한 항(물론 하나뿐인 경우는 그것만)이 語頭に 와서 동일한 단어들끼리 무리를 이룬다. 대체로 신체 관계어들이 압도적으로 눈에 띄는 上位 무리를 짓는데 그들부터 빈도 순위대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눈' : 신체어1

우선 관용표현에 가장 많이 동원되는 단어는 '눈'이다. 신체어들 중에도 '눈'은 숙어 생성에 관여시킬 가장 좋은 소재로서 선호된 듯하다.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도 시각을 그만큼 중요시하였다는 이야기다.

(13) 가. '눈'이 단독으로 쓰인 예

- 1) 눈 가리고/감고//별리고 아웅/에비아 한다.(속담)(/는 유사, //는 반대 표현)
- 2) 눈 감으면 코 떼어/배어 가는/먹는 세상/인심
- 3) 눈 깜짝할 사이
- 4) 눈 딱 감다. [다른 조건을 생각하지 않다. 잘못을 못 본 체하다. 처한 조건에 순응하다.]
- 5) 눈 뜨고 도둑맞는다.(속담)
- 6) 눈 뜨고 볼 수 없다.
- 7) 눈 뜨고 絶命한다. [몹시 한을 품고 죽다.]
- 8) 눈 먼 개 젓 탐한다. (속담) [제 능력 이상의 짓을 한다.]
- 9) 눈 먼 고양이/중 갈밭 베듯/튼듯 (속담) [목표 없이 여기 저기 떠돌고 다니다.]
- 10) 눈 먼 고양이/구렁이 평의 알 굴리듯/달걀 어루듯 (속담)[소중히 아껴 다루다.]
- 11) 눈 먼 놈이 앞장선다. (속담)[못난 놈이 남보다 먼저 나선다.]
- 12) 눈 먼 망아지/말 워냥 소리 듣고 따라 간다.(속담)
[주견이 없이 시키는 대로 따라 간다.]
- 13) 눈 먼 말 타고 벼랑을 간다.(속담)
- 14) 눈 먼 사랑
- 15) 눈 먼 소경더러 눈 멀었다 하면 성낸다.(속담)

- 16) 눈 (밖)에 나다.
- 17) 눈도 거들떠 보지 않다.
- 18) 눈(썩)도 까딱/깜짝하지 않는다.
- 19) 눈썹 새에 내 川자를 누빈다.
- 20) 눈보다 동자가 크다.(속담) [배보다 배꼽이 크다.]
- 21) 눈 앓는 놈 고춧가루 넣기.(속담)
- 22) 눈 어둡다 하더니 다홍고추만 잘 만든다.[속담](속 마음이 음흉한 사람. 남의 일은 핑계만 대며 도와 주지 않는 사람.[]
- 23) 눈에 거슬리다.
- 24) 눈(에) 거칠다.
- 25) 눈에 걸리다. [눈에 거슬리다. 눈에 들어오다.]
- 26) 눈에 나다.
- 27)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 28) 눈에 독이 오르다.
- 29) 눈(에) 들다. [마음에 들다. 눈에 보이다.]
- 30) 눈에 띄다/뜨이다. [발견되다. 두드러지다.]
- 31) 눈에 모를 세우다.
- 32) 눈에 무엇이 씌었는지.
- 33) 눈에 밝히다. [잇으려 해도 눈에 보이는 것 같다.]
- 34) 눈에 불을 켜다.[담내어 눈을 빛내다. 화가 나서 눈을 부릅뜨다.]
- 35) 눈에 불이 나다/돈다. [몹시 밋다. 몹시 화가나다.]
- 36) 눈에 삼삼 귀에 쟁쟁.
- 37) 눈에서 번개가 번쩍 나다.
- 38) 눈에 선하다.
- 39) 눈에 설다/서투르다.
- 40) 눈에 쌍심지를 켜다/돋우다. [증오하는 감정을 드러내며 눈을 부릅뜨다.]
- 41) 눈에 쌍초롱을 켜 달다. [악에 받쳐 꼭 찾겠다고 핏대를 올린다.]
- 42) 눈에 藥 할래도 없다.(속담)[조금만 있어도 되는 量도 없다.]
- 43) 눈에 어리다.
- 44) 눈에 없다. [眼中에 없다. 관심 밖이다. 업신여기다.]
- 45) 눈(에) 익다.
- 46) 눈에 차다.
- 47) 눈에 칼을 세우다.

- 48) 눈에 콩깨풀이 썩었다. (속담)[앞이 가리워져 보지 못한다.]
- 49) 눈에 헛거미가 잡히다. [배가 몹시 고프다. 虛欲이 치밀어 바로 보지 못하다.]
- 50) 눈에 흙이 들어가다. [죽다.]
- 51) 눈에 눈, 이에는 이. (속담)
- 52) 눈에서 딱정벌레가 왔다 갔다 한다. (속담)「현기증으로 정신이 없다.」
- 53) 눈 위의 혹. [자기 실력보다 나아 방해가 되는 윗사람.]
- 54) 눈의 안경.
- 55) 눈은 두었다 무엇하나? <'눈' 대신 다른 말도 가능>
- 56) 눈은 있어도 망울은 없다. (속담)[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 정확히 관찰할 줄 모른다.]
- 57) 눈은 풍년이나 입은 흉년이다. (속담)
- 58) 눈(을) 감다. [죽다. 보고도 못 본 체하다.]
- 59) 눈(을) 거치다. [글 따위를 한번 대충 보다.]
- 60) 눈(을) 기(이)다. [눈을 속여 슬쩍하다.]
- 61) 눈(을) 까뒤집다.
- 62) 눈(을) 꺼리다.
- 63) 눈을 끌다. 「호기심을 일으켜 보게 하다. 마음이 쏠리다.」
- 64) 눈(을) 돌리다. [(시선을 돌리다)]. 관심을 기울이다.]
- 65) 눈(을) 뒤집다./뒤집어 쓰다. [열중하여 정신을 잃다.]
- 66) 눈을 떠도 코 베어 간다. (속담)
- 67) 눈을 떠야 별을 보지. (속담)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필요한 일을 차례대로 해야 한다.]
- 68) (-에) 눈(을)이 뜨다./뜨이다.
- 69) 눈(을) 맞추다. [(눈을 마주 보다). 사랑하는 눈치를 보이다.]
- 70) 눈(을) 부라리다.
- 71) 눈(을) 붙이다.
- 72) 눈(을) 속이다.
- 73)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인다./볼 수 없다.
- 74) 눈을 의심하다.
- 75) 눈(을) 주다. [눈길을 돌려 보다. 시선을 주어 무슨 뜻을 전하다.]
- 76) 눈(을) 팔다.
- 77) 눈(을) 피하다.
- 78) 눈(을) 흘기다.

- 79) 눈(이) 가다.
- 80) 눈이 가매지계/도록 [몹시 기다리는 모양]
- 81) 눈(이) 꺼지다.
- 82) 눈(이) 나오다. [심히 꾸지람을 듣다. 엄청나게 비싸다. 몹시 고되다.]
- 83) 눈(이) 높다. [좋은 것만 탐한다. 鑑識力이 높은 수준이다.]
- 84) 눈(이) 돌다. [몹시 바쁘다.]
- 85) 눈(이) 동그래지다/동그래지다.
- 86) 눈(이) 뒤집히다. [환장을 하다. 참혹한 일로 제 정신을 잃다.]
- 87) 눈이 등잔만하다.
- 88) 눈(이) 많다. [보는 사람이 많다.]
- 89) 눈(이) 맞다. [마음이 서로 통하다. 남녀의 사랑이 짝트다.]
- 90) (-에) 눈(이) 멀다. [시력을 잃다. 한 가지 일에만 골몰히 마음을 쓴다.]
- 91) 눈(이) 무디다.
- 92) 눈(이) 밝다.
- 93) 눈(이) 별절다.
- 94) 눈이 보배다. (속담)
- 95) 눈(이) 빠지도록/게 기다리다/나무라다. [몹시 초조하게 기다리다. 꾸지람을 호되게 듣다.]
- 96) 눈(이) 빠다.
- 97) 눈(이) 시다. [아주 많이 보아 신기한 맛이 없다.]
- 98) 눈(이) 시퍼렇다. [멀쩡히 살아 있다.]
- 99) 눈이 아무리 밝아도 제 코는 안 보인다. (속담)
- 100) 눈(이) 어둡다.
- 101) 눈이 저을이다. (속담) 「눈짐작이 잘 들어맞는다.」
- 102) 눈이 캄캄하다. [정신이 아찔하여 생각이 꼭 막히다. 판무식의 까막눈이다.]
- 103) 눈 큰 황소 발 큰 도둑놈(속담) [눈이 크거나 발이 큰 사람을 놀리는 말]
- 나. '눈'이 복합어로 쓰인 예
- 104) 눈가림
- 105) 눈감다. [(눈시울을 마주 붙이다), 죽다. 보고도 못 본 체하다.]
- 106) 눈감아 주다.
- 107) 눈겨칠다. [하는 짓이 보기 싫다/온당치 못하다.]
- 108) 눈곱(자기)만하다.
- 109) 눈구석에 쌍가래툰 선다. (속담) [너무 분해 눈에 독기가 서린다.]

- 110) 눈기이다. [남의 눈을 속이다.]
- 111) 눈길을 끌다. [관심이 가게 하다.]
- 112) 눈길을 모으다.
- 113) 눈(꼴)이 사납다.
- 114) 눈(꼴)(이) 시다.
- 115) 눈꼴이 틀리다. [불쾌감을 느끼도록 보기가 싫다.]
- 116) 눈 높다.
- 117) 눈독(을) 들이다.
- 118) 눈딱부리
- 119) 눈따지 [보기에 험상궂고 흉한 눈 또는 눈매]
- 120) 눈뜨다. [(눈을 열다), (잠을 깨다), 장님이 시력을 얻다. 참뜻을 깨닫다. 문학 따위를 알게 되다. (예) 신학문에 눈뜨다.]
- 121) 눈뜬 장님 [청맹과니, 문맹자]
- 122) 눈맞다.
- 123) 눈맞추다.
- 124) 눈먼 돈 [임자 없는 돈, 우연히 생긴 공돈]
- 125) 눈멀다.
- 126) 눈 먼 자식이 효자노릇 한다. (속담) [평소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된다.]
- 127) 눈먼 탓이나 하지 개천은 나무래 무엇하나. (속담) [자기 부족함을 탓하지 남을 원망치 마라.]
- 128) 눈물(을) 거두다.
- 129) 눈물을 삼키다. [슬픔이나 억울함을 참다.]
- 130) 눈물을 머금다.
- 131) 눈물(을) 짜다. [공연히 눈물을 흘리며 울다. 억지로 울다.]
- 132) 눈물을 짓다.
- 133) 눈물이 골짜난다. [억울하여 눈물이 많이 나다.]
- 134) 눈물(이) 돌다.
- 135) 눈물(이) 어리다/지다.
- 136) 눈물(이) 없다. [동정이나 감동하는 일이 없다.]
- 137) 눈물이 앞을 가리다. [눈물이 자꾸 흐르다.]
- 138) 눈물이 해프다.
- 139) 눈바래기 [눈으로만 하는 배웅]

- 140) 눈밝다. [시력이 좋다.]
- 141) 눈(방울)을 굴리다.
- 142) 눈부시다. [빛이 세어 보기 어렵다. 황홀하다. 업적이 훌륭하다.]
- 143) 눈부처 [눈동자에 비쳐 나타난 사람의 형상]
- 144) 눈불이다. [잠시 잠자다.]
- 145) 눈비움 [남의 눈에 잘 보이려 겉으로만 꾸밈]
- 146) 눈빠다. [잘못 알아 볼 때 빈정거리는 말]
- 147) 눈살을 찌푸리다. [양미간을 찡그려 못마땅해 하다.]
- 148) 눈설다.
- 149) 눈썹에 불붙는다. [걱정거리가 갑자기 생겼다.]
- 150) 눈시울이 뜨거워지다.
- 151) 눈씨 [쏘아보는 눈빛, (예) 매서운 눈씨에 우선 기가 꺾였다.]
- 152) 눈(알)이 곤두서다.
- 153) 눈(알)을 곤두세우다.
- 153) 눈앞이 캄캄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 154) 눈어둡다. [(시력이 약하다), 어떤 상황의 속내를 잘 모르는 처지다.]
- 155) 눈어리다. [시력이 흐리다.]
- 156) 눈엣가시 [몹시 미워 늘 눈에 거슬리는 사람]
- 157) 눈여겨보다.
- 158) 눈요기
- 159) 눈웃음(을) (짓다/치다)
- 160) 눈자위가 꺼지다. [죽다.]
- 161) 눈찌를 막대「아무리 약한 자도 자기를 해치는 자를 막을 수단을 가졌다. 남의 급소를 찔러 해치려는 교약한 마음.»
- 162) 눈초리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구석, 바라보는 눈길]
- 163) 눈총(을) 받다/맞다. [남의 미움을 받다.]
- 164) 눈총(을) 쏘다/주다.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에서 쏘아 보다.]
- 165) 눈치가 다르다. [태도나 행동이 평상시와 달리 이상스럽다.]
- 166) 눈치가 보인다.
- 167)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젓갈/새우젓/조개젓을 얻어 먹는다. (속담)
- 168) 눈치가 (알)안는 암탉 잡아 먹겠다. 「아둔하고 분별없다.»
- 169) 눈치(가) 있다. [남의 마음이나 낱새를 알아채는 재주가 있다.]
- 170) 눈치가 있으면 떡이나 얻어 먹지.

- 171) 눈치는 刑事다.
- 172) 눈치(를) 살피다/보다.
- 173) 눈치놀음 [눈치를 보며 잘 맞추어 행동하는 일]
- 174) 눈치 빠르기는 도갓집 강아지(속담) [몹시 눈치가 빠르다.]
- 175) 눈치(를) 채다/차리다.
- 176) 눈치 코치 다 안다.(속담)
- 177) 눈치 코치도 모른다.(속담)
- 178) 눈칫밥(을) (먹다)
- 179) 눈코 뜰 새 없다.
- 180) 눈코 사이 [아주 가까운 사이]
- 181) 눈표(가) 나다. [눈에 잘 띄다.]
- 182) 눈허리(가) 시다/시어 못 보겠다. [보기에 몹시 아니꼽다.]
다. '눈' 앞에 수식 부분이 있는 예
- 183) -에 까막눈이다. [어떤 부문에 무식한 사람]
- 184) 남의 눈(길)이 무섭다.
- 185) -의 눈에 들다.
- 186) -을 보는 눈이 있다//없다 [안목이 있다//없다.]
- 187) -을 이상한 눈으로 보다.
- 188) 거적눈 [윗눈시울이 축 처져 늘어진 눈]
- 189) 게눈 감추듯 한다. <이 경우는 사람의 신체는 아니다.>
- 190) 군눈(을) 뜨다. [外道를 알게 되다.]
- 191) 군눈(을) 팔다.
- 192) 길눈이 밝다//어둡다.
- 193) 닭 똥 같은 눈물
- 194) 도끼눈을 뜨다.
- 195) 뜯눈으로 밤을 새다.
- 196) 먼눈(을) 팔다.
- 197) 밥눈이 어둡다.
- 198) 속눈(을) 뜨다. [눈을 감은 듯 만 듯 가늘게 뜨다.]
- 199)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 <'눈으로'는 '표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굳은 형태.>
- 200) 실눈(을) 뜨다.
- 201) 제 눈에 안경이다.
- 202) 첫눈에 반하다/들다.

203) 한눈에 가득히 (보이다/차다)

204) 한눈에 알아 보다.

205) 한눈(을) 팔다.

이상에 열거한 예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겠으나 꽤 포괄적으로 ‘눈’에 관한 廣義의 관용 표현을 다 망라한 것이다. 구절적 속어 내지 문장 차원의 속어표현으로서 약간의 속담까지도 포함시켰고 반대로 ‘눈칫밥’ 같은 복합어도 여기에 넣어 보았다. 무려 205개까지 모였으나 더 나올 수도 있다. 특히 복합어(합성어전 파생어전)를 더 넓게 넣으면 그 수효는 꽤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한 직설의미로서의 ‘눈을 감다//뜨다’ 같은 자유 표현은 배제하였다. 이와 외형상 똑같이 보이는 ‘눈을 감다’가 ‘죽다, 못 본 체하다’의 뜻으로, 또 ‘눈을 뜨다’도 (‘-에’라는 대상이 선행하여) ‘어떤 분야에 관심이나 안목이 생기다’라는 관용의미로 쓰인 경우만을 여기에 목록화했다. 같은 이유로 ‘눈이 맑다’는 배제해도 ‘눈이 밝다’는 포함시킨다.

그리고 위에서 집계상 문제가 있는 예들은 ‘눈(을) 감다, 눈(이) 높다, 눈(을) 뜨다, 눈(이) 맞다, 눈(을) 맞추다, 눈(이) 멀다, 눈(을) 붙이다, 눈(이) 빠다, 눈(에) 설다’ 등이다. 이들은 단독으로 쓰인 (13) 가.와 복합어로 쓰인 (13) 나.의 예에 두 번 열거되어 집계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이외에도 조사를 넣거나 빼고 써도 다 좋은 예들이 더 있을 수 있다. 가령 ‘눈(이) 꺼지다, 눈(을) 속이다, 눈(을) 주다, 눈(이) 뒤집히다’ 등은 ‘눈꺼지다, 눈속이다, 눈주다, 눈뒤집히다’ 등의 어형이 (13) 나.에 포함되지 않아 단순히 조사가 쓰인 가쪽으로부터 집계된 것이다. 이런 불균형된 등재 조치는 현용 사전에 비일비재하게 보이는 것으로 이런 사전들에서 자료를 모은 위의 목록에서도 이런 흔적이 얼마간 끼어들어간 셈이다. 만약 이것들까지 이중집계를 한다면 쉽사리 200여 개 항목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안경화(1986: 57)에서 예측한 바, 명사는 “그대로 둔 체 동사 부분이 바뀔므로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동사 부분이 명사 부분보다 관용의미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듯하다.”는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 위의 ‘눈’의 경우를 보면 이 내용은 옳게도 보인다. ‘눈’에 뒤따라오는 여러 형태의 서술부가 현란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모든 ‘명사 + 동사’ 관계에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위의 ‘눈’이나 ‘입, 손, 배, 목, 간, 귀, 코’ 등등의 신체 관계 명사들에나 다양한 서술어가 뒤따르는 관용표현이 발달해 있지 일반적으로 모든 명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동사가 뒤따르지 않는 명사부분에만 독자적 관용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예들도 많아서 위의 복합어 경우인 (13) 나.에서 ‘눈딱부리, 눈딱지, 눈부처, 눈썸, 눈요기, 눈초리, 눈칫밥’ 등은 그런 범주로 포용해 본 것들이다. 물론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혹자는 위 예들은 관용표현이 아닌 단순한 복합어라 할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이 일면 이

문제는 관용표현의 정의에 대한 국면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사전 등재방식의 문제까지도 번지는 것이다. 이상역(1993)에서 이런 국면을 약간 논하였기로 여기 옮겨 보겠다.

관용어 혹은 관용표현을 사전에 등재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등재항이 하나의 어휘소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미역국을 먹다”는 ‘미역국’과 ‘먹다’라는 별개의 어휘소의 직설적 의미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실제로 국을 먹는 경우)이 아니라 ‘낙방하다’와 지시의미가 동일할 때에라야만 “미역국을 먹다”가 하나의 굳어진 관용표현으로 사전의 등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역국(을) 먹다”를 드물게 독립된 표제항으로 사전에 올리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흔히 ‘미역’ 아래의 ‘미역국’이란 표제항 내부에 관련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미역국’의 뜻풀이 자체에 ‘낙방, 해고, 거절, 탈락’ 등의 뜻이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 사전이 거의 전부이지만, 실제로는 ‘먹다’를 붙여 쓰지 않고도 “너는 미역국이다”가 가능하다. 이 경우 ‘미역국’은 ‘미역’과 ‘국’이 합성되어 전혀 제3의 뜻을 나타내는 융합합성어가 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바가지(를) 쓰다”와 “바가지(를) 굶다”에서 “바가지”가 각각 ‘비싼 대가, 손해, 책임’과 ‘월난, 불평, (아내의) 잔소리’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바가지 싸움”이란 말도 ‘바가지’의 다의어적 의미를 쓰고 있는 예다. 다만 ‘바가지’는 ‘박’에 ‘아지’란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이므로 앞서부터 말해 온 융합합성어는 될 수 없다.

합성어건 파생어건 복합어라는 상위 개념에 넣고 볼 때, 구·절 등과 구별하기 어려운 예들이 사전에 어떻게 등재되어야 할까를 살펴 본 것이 위 글의 내용이다. 두 형태가 길이는 달라도 관용의미를 공동으로 갖는다는 점에서 연관이 된다. ‘미역국’과 ‘바가지’가 명사 단독으로 관용의미를 갖는다면, ‘눈치밥’과 ‘눈초리’도 마찬가지다. ‘국’을 먹건 ‘밥’을 먹건 또 ‘-아지’를 붙이건 ‘-초리’(제비/회 + 초리)란 접미사를 붙이건 마찬가지다. 결국 ‘눈치밥(을) 먹다, 눈초리(가) 사납다/매섭다’ 등이 풍기는 뜻을 명사 자체에서도 다음과 같이 느낄 수 있다.

(14) 가. 처가집에 얹혀 지내니 항상 눈치밥이다.

나. 견디기 어려운 것은 장모의 (날카로운) 눈초리다.

(14)에서 볼 수 있고, ‘못생긴 너는 미역국이다’ 또는 ‘이 식당은 바가지다’에서 볼 수 있듯이 ‘명사 + 이다’로서 형식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항시 ‘명사 + 이다’가 관용의미를 뚜렷이 지닌 명사만의 용법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돈 없이 쇼핑하는 것은 눈요기다’ 정도는 괜찮아도 ‘첫눈에 기를 꺾는 것이 (매서운) 눈씨다’는 약간 덜 익숙하다. 아마 ‘눈씨’라는 말을 자주 안 쓰는 것이라 그런지도 모른다. 하여튼 익숙함의 정도차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 두더라도 기본적으로 ‘명사 + 이다’ 형식이 쓰인다면 그 명사 단독으로 관용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좋겠다. 즉 서술어의 後行이 없이도 명사 자체가 관용적 해석을 유발시킨 것이다. (14) 나.에서 ‘날카로운’을 빼도 별 문제가 없고 ‘매서운’도 빠진 채 ‘눈씨’만으로 ‘쏘아보는 눈빛’이 느껴지면 명사만에도

관용의미가 있다고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결국 이 정도의 기준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란 점에는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경화(1986)의 “동사 부분이 명사 부분보다 관용의미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듯하다.”는 관찰은 피상적인 얘기고 명사류만도 다양한 관용의미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로 한다.

한 가지 덧붙여 둘 것은 ‘눈’ 앞에 수식부분(旬건 복합어의 일부이건)이 있는 (13) 다. 의 경우, 가령 ‘남의 눈이 무섭다’만 ‘남의’라는 수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13) 가. 와 (13) 나. 의 다른 예들 중에도 이 경우와 비슷한 수식 부분이 앞에 오는 예들이 주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견은 수용하겠다는 여유를 가지고 작성된 목록임을 밝혀 둔다.

B. ‘손’ : 신체어2

신체어 중 두번째로 자주 쓰이는 ‘손’을 가진 관용표현을 보기로 하자.

(15) 가. ‘손’이 단독으로 쓰인 예.

- 1) 손 안 대고 코풀기.(속담)
- 2) 손에 걸리다.
- 3) 손에 넘어가다.
- 4) 손에 넣다.
- 5) 손에 돌아나다.
- 6) 손에 달리다. [일손이 달리다]
- 7) 손에 들다.
- 8) 손에 땀을 쥐다.
- 9) 손에 붙은 밥풀 아니 먹을까?(속담)
- 10) 손에 손을 잡다.
- 11) 손에 떨어지다. [어떤 세력 밑에 들어가다]
- 12) 손(에) 익다.
- 13) 손에 잡히다.
- 14) 손에 잡힐 듯하다.
- 15) 손에 쥐다.
- 16) 손으로 살 막듯.(속담)
- 17) 손을 거치다. [어떤 사람을 경유하다. 손질을 입다.]
- 18) 손(을) 꿔다.
- 19) 손(을) 나누다. [헤어지다. 한 가지 일을 여럿이 나누어 하다.]
- 20) 손(을) 내밀다. [무엇을 달라고 하다. 간섭하다.]

- 21) 손(을) 넘기다. [물건을 셀 때 잘못 계산하다. 시기를 놓치다.]
- 22) 손(을) 빼다.
- 23) 손(을) 땀다. [할 일이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다.]
- 24) 손(을) 멈추다.
- 25) 손(을) 벌리다. [(돈을) 귀찮게 요구하다.]
- 26) 손(을) 붙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다. 노력을 들여 일하다.]
- 27) 손(을) 비비다.
- 28) 손(을) 빌리다.
- 29) 손(을) 빼다.
- 30) 손(을) 뺨치다.
- 31) 손(을) 씻다.
- 32) 손(을) 짓다. [거절하다]
- 33) 손(을) 주다. [덩굴이 타고 오르도록 막대기를 대어 주다.]
- 34) 손(을) 타다. [물건이 자주 없어지다.]
- 35) 손(을) 털다.
- 36) 손(이) 가다. [손이 미치다. 손을 대어 매만지다.]
- 37) 손(이) 거칠다. [손버릇이 나쁘다. 일삼씨가 세밀하지 못하다.]
- 38) 손(이) 곱다. [손이 차서 움직이지 않는다.]
- 39) 손(이) 나다.
- 40) 손(이) 달리다/모자라다//많다.
- 41) 손(이) 뜨다.
- 42) 손(이) 맑다. [재수가 없어 생기는 것이 없다. 인색하여 다랍다.]
- 43) 손(이) 맞다.
- 44) 손(이) 맵다. [슬쩍 때려도 아프다. 일이 야무지다. 가축을 기르는 데에 번번이 실패 한다.]
- 45) 손(이) 비다. [할 일이 없다. 수중에 돈이 없다.]
- 46) 손(이) 빠르다. [민첩하다. 물건이 잘 팔려 나간다.]
- 47) 손(이) 서투르다.
- 48) 손(이) 설다.
- 49) 손(이) 싸다. [손놀림이 빠르다.]
- 50) 손(이) 여물다. [손으로 하는 일을 빈틈없이 잘하다.]
- 51) 손(이) 작다. [물건의 씹씹이가 작다. 수단이 적다.]
- 52) 손(이) 잠기다. [일에 매여 벗어날 수 없게 되다.]

- 53) 손(이) 재다. [동작이 빠르다.]
- 54) 손(이) 크다. [쌈쌈이가 후하고 크다. 수단이 좋고 많다.]
- 55) 손 쟈 승(僧)의 비질하듯.
나. '손'이 복합어로 쓰인 예.
- 56) 손가락에 불을 지르고 하늘에 오른다. (속담) [도저히 할 수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 57) 손가락으로 하늘 찌르기. (속담)
- 58) 손가락질(을) 받다.
- 59) 손가락총질 [북한어: 남을 비난하여 손가락을 내뻗쳐 가리킴.]
- 60) 손그릇 [거저하는 자리에 가까이 두고 늘 쓰는 작은 세간.]
- 61) 손금(을) 보다. [손금으로 집치다. 화투 패를 손바닥에 들고 보는 노름을 하다.]
- 62) 손금 보듯 하다. [날날이 다 알다.]
- 63) 손기척(하다). [북한어: 노크(knock, 하다)]
- 64) 손길 [손바닥을 펴서 내민 손. (예) -이 닿다. 위해 주려는 마음으로 내민 손. (예)사랑의-.]
- 65) 손길(을) 잡다.
- 66) 손꼽다. [수를 세다. 많은 사람 중 뛰어나다. (예)당대의 손꼽는 시인.]
- 67) 손끝에 물도 튀기(지 않)다. [아무 일도 하지 않다.]
- 68) 손(끝)(이)/(때)(가) 맵다. [슬쩍 때려도 아프다. 일이 야무지다.]
- 69) 손(끝)(을) 뺏다.
- 70) 손끝(예) 물이 오르다. [구차하던 살림이 점차 부유해지다.]
- 71) 손(끝)(이) 여물다.
- 72) 손놓다. [하던 일을 그만 두다.]
- 73) 손닿다. [(손이 미치다.) 능력이 미치다.]
- 74) 손대다. [(손으로 만지다.) 일을 시작하다. 어떤 일에 관계하다. 남을 때리다. 고치다. 남의 재물을 착복하다.]
- 75) 손대중.
- 76) 손더듬이(하다.)
- 77) 손독(을) 올리다.
- 78) 손독(이) 오르다.
- 79) 손들다.
- 80) 손때(가) 맵다.
- 81) 손때(가) 먹다/물다.

- 82) 손때(를) 먹이다. [광이 나게 한다. 길들여 쓰다. 양육하다.]
- 83) 손때다. [남과 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 두다. 하던 일을 마쳐 끝을 맺다.]
- 84) 손뜨겁다/부끄럽다. [손을 내밀었다가 못 받아/주어 무안하다.]
- 85) 손목을 잡고 말리다. [기어코 못 하게 말리다.]
- 86) 손바꿈 [능한 솜씨를 서로 바꾸어 일하는 것. 그 날 일에 서로 사람을 바꾸어 일하는 것, 換手.]
- 87) 손바닥(을) 뒤집듯 하다.
- 88) 손바람. [일을 잘 치러 나가는 솜씨나 기세.]
- 89) 손발(을) 건다. [죽은 사람의 몸이 굳어지기 전에 수족을 거두어 놓다.]
- 90) 손발(을) 치다. [자기가 발견한 것을 여러 사람에게 외치다.]
- 91) 손발(이) 맞다.
- 92) 손발이 닳도록 빌다.
- 93) 손발이 되다.
- 94) 손버릇(이) 사납다.
- 95) 손보기 [일이나 물건 등이 결점이 없도록 보살피는 일. 손질.]
- 96) 손뻐(을) 치다. [(두 손바닥을 마주 쳐 소리를 내다.) 찬성하다.]
- 97) 손살사래(를) 치다. [조용하라거나 부인할 때 손을 펴 휘젓다.]
- 98) 손살/살피 [손가락 사이]
- 99) 손속 [노름에서 패가 손에 잘 맞아 나오는 운수, 手德]
- 100) 손심부름(하다.) [신변 주위의 잔 심부름하다.]
- 101) 손쓰다. [필요한 시기에 조치하다.]
- 102) 손셋이 [수고를 값는 뜻의 예로 적은 물건을 주는 일]
- 103) 손아귀 안에 넣다. [완전히 자기 것으로 하다.]
- 104) 손어림 짐작(하다.)
- 105) 손잡다. [(손을 마주 잡다.)힘을 합쳐 일하다. 다시 친숙해지다.]
- 106) 손질 [=손돋보기. 남을 함부로 때림=손찌검. 바둑에서 자기 집에 필요한 돌을 두는 일.]
- 107) 손채양(북한어) [해를 가리려고 이마에 손을 얹는 일.]
- 108) 손치다. [물건을 매만져 바로 잡다. 물건이 없어지거나 어지럽게 되다.]
- 109) 손톱도 안 들어가다.
- 110) 손톱만큼도(뒤에 否定적인 말을 씀)
- 111) 손톱 밑에 가서 드는 줄은 알아도 엄통 밑에 쉬 스는 줄은 모른다.(속담) [작은 이해관계는 밝아도 큰 손해에는 어둡다.]

- 112) 손톱 발톱이 젖혀지도록 벌어 먹인다. [있는 힘을 다하다.]
- 113) 손톱 여물을 썬다. [큰 걱정을 품고 혼자 애를 쓰다. 음식을 나눠 줄때 아껴 조금씩 주다.]
- 114) 손톱은 슬플 때마다 돌고 발톱은 기쁠 때마다 돌는다. (속담) [발톱보다는 손톱이 더 잘 자란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다.]
- 115) 손톱을 튀기다. [일은 하지 않고 놀고만 지내다.]
- 116) 손톱 저기다. [손톱으로 찍어서 자국을 내다.]
- 117) 손톱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 118) 손타 [곱게 얽은 얼굴의 마맛자국.]
다. '손' 앞에 수식부분이 있는 예.
- 119) 내민 손이 무안하다.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가 못 받거나, 주는 데도 안 받아 무안하다.]
- 120) 든 손에 다 끝내다. [일을 시작한 손/김에 얼른 다 끝내다.]
- 121) 뒷손(을) 내밀다/벌리다.
- 122) 뒷손(을) 보다. [뒷수쇄/치다꺼리하는 잔손질을 하다.]
- 123) 뒷손(을) 쓰다. [남 몰래 필요한 조치를 취하다.]
- 124) 뒷손(이) 가다. [뒷손질하다.]
- 125) 뒷손(이) 없다.
- 126) 뒷손가락질(하다.)
- 127) 맨손 [아무것도 끼지 않은 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손, 手. (예) 맨손으로 모은 재산.]
- 128) 부손 [화로에 꽂아두고 쓰는 작은 부삽. 불 + 손]
- 129) 비손(하다.) [신에게 손을 비비며 소원을 빌다.]
- 130) 빈손 털다. [헛일이 되어 소득이없다. 가진 것을 몽땅 털다.]
- 131) 살손 [연장 없이 바로 대서 만지는 손. 일을 정성껏 하는 손.]
- 132) 살손(을) 붙이다. [일을 정성껏 다잡아 하다.]
- 133) 선손(을) 걸다/쓰다. [先手를 치/쓰다.]
- 134) 선손질 [먼저 손찌검하는 짓]
- 135) 선손질 후방망이 [남을 해롭게 하면 다음에 자기가 큰 해를 입는다.]
- 136) 손잡손 [좁스럽고 알망곳은 손장난]
- 137) (어머니 손은) 약손
- 138) 영너릿손 [환심을 사려고 어벌쩍하게 서두르는 솜씨.]
- 139) 왼손콕질 [식사 때 수저를 왼손으로 쥐고 놀리는 것.]

- 140) 일손 [(일하는 손). 일하는 솜씨. 일하는 사람.]
- 141) 일손(을) 놓다. [하던 일을 그만 두다. 잠시 쉬다.]
- 142) 일손(을) 떼다./쉬다.
- 143) 일손이 잡히다.
- 144) 잡손(질)(하다.)
- 145) 잡을손(이) 뜨다. [일을 다잡아 해내는 솜씨가 몹시 굼뜨다.]
- 146) 잡힐손 [쓸모 있는 재간]
- 147) 조막손이 달걀 놓치듯
- 148) 조막손이 달걀 도둑질하다.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이루었다.]
- 149) 조막손이 달걀 떨어뜨린 셈 [낭패를 보고 어쩔 줄 모른다.]
- 150) 조막손이 달걀 만지듯 [주무르기만 하고 꼭 잡지 못하다.]

원래 ‘관용 표현의 의미론’을 논하는 자리이므로 ‘눈’이나 ‘손’에 대한 의미 범주에 대해 자세한 하위 분류라든가 다른 의미론적 유형에 입각한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의 (15)가, 예들을 볼 때 우선 통사론적 형태부터 뚜렷이 구별되어 있기에 여기에 잠시 ‘-에, -을, -이’ 가운데 어느 격조사를 받느냐에 따라 추세를 집계해 보겠다. 뒤에 기술할 ‘입’까지 포괄해 다루어 보겠다.

	눈	손	입
-에	28	14	15
-을	21	19	13
-이	24	19	30

이 집계에서 한 가지 특색은 ‘입 + 이’ 항목이 다른 것들보다 비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그 많아진 이유는 알 수 없고 아마 우연한 분포가 아닌가 싶다.

C. ‘입’: 신체어 3

그러면 신체어를 동원한 관용표현 중 세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이는 ‘입’에 관한 다음 예들을 보자.

(16) 가. ‘입’이 단독으로 쓰인 예

- 1) 입 밖에 내다.
- 2) 입 안의 소리.
- 3) 입 (안)의 혀 [=입에 혀같다.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다.]
- 4) 입 하나는 그만이다.
- 5) 입도 뻥긋 안 하다.

- 6) 입만 까다/가지고 한 몫 보다.
- 7) 입만 살다/성하다. [실천 없이 말만 잘하다. 치지가 음식을 가 려 먹을 형편이 못 되어도 음식을 몹시 가리다.]
- 8) 입만 아프다.
- 9) 입에 거미줄 치다(속담).
- 10) 입에 거품을 물고 대들다.
- 11) 입에 꿀을 바른 말.
- 12) 입에 맞는 떡.(속담)
- 13) 입에 맞다.
- 14) 입에 문 혀도 깨물다.(속담) [사람인 이상 실수가 있다.]
- 15) 입에 발린/붙은 소리.
- 16)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속담)
- 17) 입에 오르내리다.
- 18) 입에 오르다. [이야기 대상이 되다. (-을) 말하기에 버릇이 되다.]
- 19) 입에 올리다.
- 20) 입에 익다.
- 21) 입에 침이 마르도록/없이 (칭찬/자랑하다).
- 22) 입에 풀칠(을) (겨우) 하다.(속담)
- 23) 입에 혀 같다/혀처럼 굴다.
- 24) (입에서) 신물이 나다.(속담)
- 25) (입에서) 젓내(가) 나다.(속담) [나이가 어리다. 언동이 어리다.]
- 26) 입은 두었다 무엇하나?
- 27)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헤라/하렸다.(속담)
- 28) 입은 비뚤어졌어도 주라는 바로 불렀다.(속담)
- 29) 입(을) 놀리다. [(말하다). 함부로 지껄이다.]
- 30) 입(을) 다물다. [(말을 하지 않다). 할 말을 그만 두다.]
- 31) 입을 딱 벌리다. [기가 막히다.]
- 32) 입(을) 폐다/열다.
- 33) 입(을) 막다. [말이 나가지 않게 하다.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도록 만족하게 하여 주다.]
- 34) 입(을) 맞추다. [(입술을 대다). 서로 말의 내용을 같게 짜다.]
- 35) 입(을) 모으다. [여럿이 같은 의견으로 말하다.]
- 36) 입(을) 벌리다. [달라고 욕심내다. 기가 막히다.]

- 37) 입(을) 봉/함봉하다.
- 38) 입(을) 씻기다. [불리한 말을 못하도록 매수하다.] → 입씻김
- 39) 입(을) 씻다. [입을 닦다. 혼자 가로채고 시치미를 떼다.] → 입씻이
- 40) 입(을) 열자나 빼고 있다.
- 41) 입(을) 틀어막다.
- 42) 입(이) 가볍다/싸다.
- 43) 입(이) 거칠다/절다/질다. [말씀씨가 험하고 푸지다.]
- 44) 입이 궁금하다. [먹고 싶은 생각이 나다.]
- 45) 입이 근질근질하다/가렵다.
- 46) 입(이) 달다. [음식 맛이 있다.]
- 47) 입(이) 닳게/닳도록 (일렀다).
- 48) 입(이) 더럽다.
- 49) 입(이) 되다. [음식에 까다롭다.]
- 50) 입이 떨어지다.
- 51) 입(이) 뜨다.
- 52) 입(이) 많다. [식구가 많다.]
- 53) 입(이) 무겁다.
- 54) 입(이) 바르다.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듣는 이가 꺼릴 만큼 날카롭게 말을 잘 하다. (예) 입바른 소리.]
- 55) 입(이) 발다/짧다. [음식을 가려 먹거나 적게 먹는다.]
- 56) 입(이) 벌어지다.
- 57) 입이 보배.
- 58) 입(이) 빠르다. [입이 가벼워 마구 지껄이다. = 입이 싸다. 남의 약점을 잘 찢러 말하다. = 입이 바르다.]
- 59) 입(이) 사복(司僕) 개천 같다. [말과 가마를 관장하던 사복시의 더러운 물이 흐르는 개천같이 입이 걸다.]
- 60) 입이 서울. [먹는 것이 제일.]
- 61) 입(이) 싸다.
- 62) 입(이) 쓰다.
- 63) 입이 여럿이면 금도 녹인다.
- 64) 입(이) 여무지다/여물다. [말이 확실하고 실속이 있다.]
- 65) 입(이) 열(돌)이라도/괘주리만 해도 말 못 한다/할 말이 없다.
- 66) 입(이) 원수/구복(口服)이 원수/입이 포도청. [목구멍이 포도청.]

- 67) 입(이) 재다.
 68) 입이 천근 같다.
 69) 입(이) 푸짐하다/푸지다.
 70) 입이 함박만하다. [아주 만족해 하다.]
 71) 입이 험하다.
 나. '입' 이 복합어로 쓰인 예
 72) 입가심 [입 안이 텅텅할 때 개운하게 하는 것. 입맛나게 미리 간단히 먹는 것.]
 73) 입(길)에 오르내리다. [입길 = 남을 홍보는 입의 놀림.]
 74) 입김(을) 넣다.
 75) 입김(이) 세다.
 76) 입김(이) 어리다.
 77) 입내(를) 내다. [소리와 말로써 흥내내다.]
 78) 입노릇 [끼니 외에 '음식 먹는 짓' 의 속칭.]
 79) 입다심/입매 [음식을 조금 먹어 시장기를 면하는 것.]
 80) 입다짐
 81) 입다툼 [말다툼]
 82) 입담 좋다. [입심을 부리는 말재주. 말솜씨가 좋다.]
 83) 입덧(이) 나다.
 84) 입되다. [맛있는 음식만 탐하는 버릇이 있다. 가리는 음식이 많은 성미다.]
 85) 입막음 (하다).
 86) 입맛대로 하다. [지 좋을대로 하다.]
 87) 입맛(이) 돌다/당기다.
 88) 입맛(이) 떨어지다. [(식욕이 떨어지다). 흥미가 없어지다.]
 89) 입맛(이) 쓰다//달다.
 90) 입맛(이) 짧다. [= 입되다.]
 91) 입맛(을) 다시다. [음식을 먹고 싶어 하다. 무엇을 갖거나 하고 싶어 욕심을낸다. 뜻대로 안 되어 난처해 하다. (예)쓴 입맛을 다시다.]
 92) 입맛(을) 붙이다. [재미를 붙이다.]
 93) 입맛(을) 잃다. [구미나 흥미를 잃다.]
 94) 입매 [(음식을 조금 먹어 시장기를 면함). 남의 눈가림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일. '입모양' 이란 뜻의 '입매'와는 다름.]
 95) 입땀상 [잔치 때 큰 상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대접하는 상.]